

2024 기획초청 Pick크닉



배소고지 이야기

; 기억의 연못

작
진주
연출
김희영

무대	박상봉	황세원	김윤서
조명	김성구	임정은	조희운
음향	이제형	서미영	안선하
분장·소품	장경숙	임다은	박지수
의상	조현정	김승환	
음악감독	정보형	윤일식	
연무감독	박소진	김솔빈	
조연출	강수경	김동하	
가피	김자빈	오준석	

제작 프로덕션IDA(아이디메이)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2024 8.31.-9.8.

[제공:국립극단]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944-1555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일시 | 2024.08.31.토-09.08.일

장소 | 명동예술극장

주최 | 국립극단

창작의도

“나는 아직 끝난 것이 하나도 없다...”

역사 속 전쟁은 대부분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국가’, ‘대도시’ 그리고 ‘군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극은 거대담론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미시적 공간과 관계 속에서
전쟁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비극적으로 관통해왔는지를 보여주며, 삶을 향한
태도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연극은 한국전쟁 중 전라도 임실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의 실제 생존자의
구술 인터뷰로부터 출발하였다. 함한희 교수의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 :
경계에 선 여성들」에 실려있는 인터뷰를 모티브로 삼아 4명의 여성 인물이
재창조되었다.

이 여성들은 전쟁 속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며 가해자, 방관자, 공모자,
피해자로 끊임없이 변모한다. 전쟁 속 희생자 혹은 재건자의 서사를 벗어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 인간이기도 하다. 남성 인물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그들은 직업이나 위치로 명명된다. 이 비극이 특정한 한
개인의 과오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삶 자체가 전쟁이었던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들의 삶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극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건을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공연소개

끝나지 않은 전쟁, 숨겨진 기억, 여성의 목소리로 복기하는 전쟁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4개부문 수상, 이집트국제청년연극제(SITFY-EGYPT) 2개부문 수상, 루마니아 바벨 페스티벌 초청 등 화제가 된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가 2024년에도 새로운 관객들을 만난다. 국내 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코러스들이 단체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고, 연이은 해외 연극제 초청으로 이집트와 루마니아 현지 관객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낳았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개인, 특히 약자인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전쟁 당시 임실군 옥정호 인근의 배소고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생존자의 구술기록을 토대로

작가 진주가 창작한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선택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념의 문제를 넘의 우리 삶에 남아있는 전쟁과 긴 기다림을 이야기한다.

깊이있는 텍스트 속에서 빛나는 배우들의 열연 속 제44회 서울연극제 연기상에 빛나는 황세원, 제8회 이집트국제청년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임정은, 그리고 서미영, 김승환, 서정식 등 실력파 배우들과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단체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코러스 김동하, 김윤서, 오준석, 안선하와 새롭게 합류한 임다은, 김솔빈, 조희윤, 박지수 등이 무대 위에 치열한 연기를 선보인다.

시놉시스

“그때는 속에 다 괴물이 살았은제....”

2016년 가을밤, 전북 임실 옥정호 인근 매운탕집.
입분의 금강혼식 전날 밤,
입분과 어린 시절 친구이자 매운탕집 사장인 순희가
마루에 앉아 있다.
그때, 그들 앞에 또다른 친구였던 ‘소녀’가 나타난다.
소녀 역시 자신이 왜 죽었는지,
이곳에 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늙어버린 친구들의 소식을 궁금해한다.
순희와 입분은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지나온 기억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작가의 글

‘한국전쟁’을 소재로 글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임실 지역 할머니들의 구술 기록 일부를 보는 순간, 이것을 쓰지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에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 같던 ‘여성’의 목소리로 이 전쟁을 복기하는 것은 단순한 승패의 논리를 떠나 전쟁이 지닌 복합적인 차원을 세밀하게 되짚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한편으로. 글을 쓰는 동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 전쟁과 그것이 남긴 상흔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 전쟁은 정말로 끝났는가? 하는 질문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 비극과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사람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곳 극장에 함께 있으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과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과 역사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희생자들과 함께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기억의 자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작가 진 주

프로덕션DA 극작가 / 글과무대 극작가

작 <열녀를 위한 장례식>(클래스)<ANAK>의 다수
공동창작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의 다수
각색 <마음의 범죄>(궁극의맛)<공동>의 다수
작/연출 <검은늑대>
수상 아동창작화극상, 강원도립극단 시놉시스 우수상,
2022월간한국연극 공연베스트7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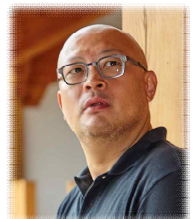
연출의 글

이 작품은 '전쟁'을 겪은 여성들이 취하는 각각 다른 선택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와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아직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온 여인들의 이야기이며 가슴속 깊게 묻어둔 기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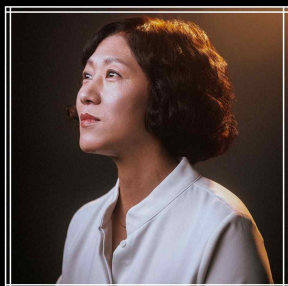
기억 속에서 그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통해 지속적인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당신의 선택들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의 공간을 정형화되지 않은 무대 위에 펼쳐 놓고 전쟁 속 외면당한 상처들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연출 김희영
프로덕션DA 대표

연출 〈그렇게 산을 넘는다, 사라지지 않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환희물집화상〉 외 다수
수상 2023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연출상〈배소고지 이야기〉
2023 대한민국연극제 제주본선 연출상, 대상〈배소고지 이야기〉
2023 제8회 이집트국제청년연극제(SITFY-EGYPT)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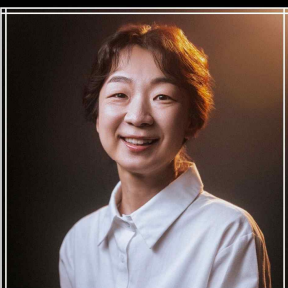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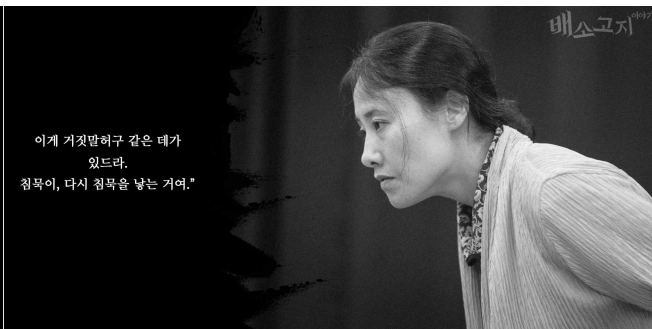
출연진



김순희여 황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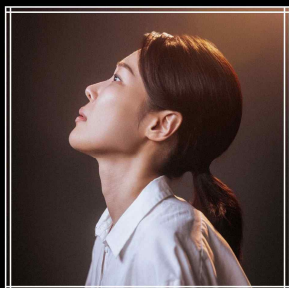
전임분여 임정은



백소녀여 서미영



출연진



박막동역 임다은

언니, 노래 불러줘,
나는 언니가 그 노래 부르는 거 좋아.



배스고지 이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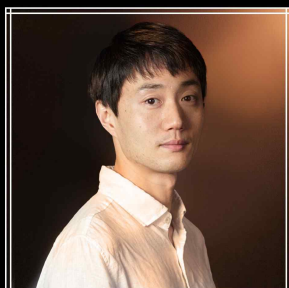


박씨역 김승환

말해,
누이 아버지가 누구시고
누이 오빠가 누구냐.
이!



배스고지 이재기



곰씨역 윤희식

그 천막 안에 나만 남았어.
근디, 그 토벌대 대장님이,
손을 내밀데.



배스고지 이재기

출연진



코러스(외팔이)역 김슬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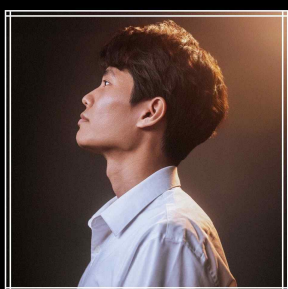
이제 신랑 신부가 오늘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러스(군인)역 김동하



국군들 총 끝에 죽음을
다닥다닥 달고 온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좋다고했지.



코러스(치안대장)역 오준석



야. 정신 바짝 차려라야.
진짜로 니 혼자만 여기 있냐?



코러스(편서기)역 김윤서



분명히 시작은 편서기,
그 사람 살리려고 시작한 것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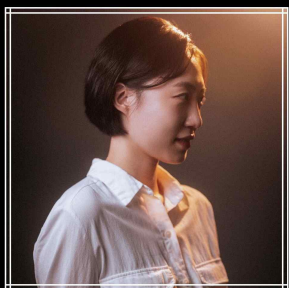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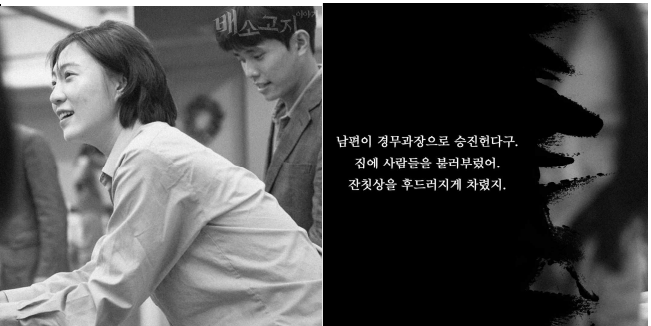
코러스(마을사람)의 조희운



코러스(마낙)의 안선하



코러스(동네모마)의 박지수



예술가와의 대화를 마치고

_배우의 기록

“코러스들에게 이 공연은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내게는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계속 해오던 고민이기에 관객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궁금해 해주시니 내 나름의 기록을 해본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며, 또 언젠가 잊혀지더라도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의 이 마음이 상기되길 바라며!

이 연극은 기억과 연대에 대한 고찰이 깊은 극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소재, 고루한 이야기라고들 하지만 작품에서 말하듯,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고 작은 전쟁이 이 세계에서, 저마다의 삶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겨운 소재라 할지라도 이를 수시로 들여다 봐야 한다. 그 이야기가 개인적일수록 어찌면 더 귀기울여야만 한다. 실체가 없더라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말이다.

예술가로서의 몫과 사명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된 작품이다. 단순히 누군가의 삶을 산다, 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상흔과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쳐 놓음으로써 우리 배우, 스탭진들도, 관객들도 모두 그 순간 속에 존재한 당사자이자 목격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다. 행동할 수 없어도 좋다. 마음 깊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 ‘연대’하는 것.

우리는 연극을 통해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 나라는 배우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 덧붙여, 많은 매체가 발달했음에도 연극이 그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환상 속에서 진실을 본다. 그리고 감각한다.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한다. 연극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을 다잡는다. 나의 배우로서의 예술가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하게 된 작품이다. 이야기 그 너머의 힘을 믿는다.

2024년 9월 1일, 안선헌



〈인터파크 관객 리뷰〉

★★★★★

오늘 나의 삶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붙잡게 해주는 느낌

- christl***

모골이 송연할 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작품

- ns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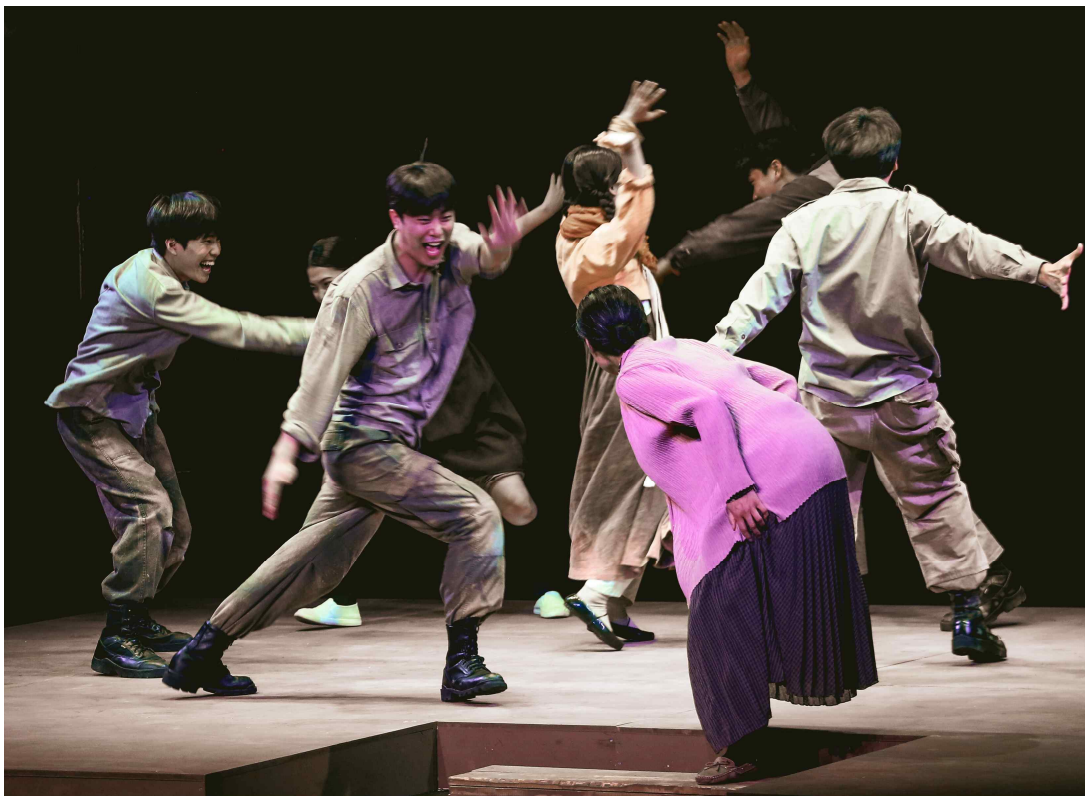
이 땅에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을 상기하게 하는 연극

- yamahah***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으며 가해자 또한 피해자였던 슬픈 역사를 절묘하게 그려낸다

- bo5***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공연사진











창작진

작가	진주
연출	김희영
무대	박상봉
조명	김성구
음향	이제형
분장/소품	장경숙
의상	조현정
음악감독	정보형
사진	이강물
조연출	강수경
기획	김자빈
제작	프로덕션IDA(아이디에이)

CAST	황세원	김솔빈
	임정은	조희윤
	서미영	김동하
	임다은	오준석
	김승환	김윤서
	윤일식	안선하
		박지수

2024 공연예술 유통사업 <배소고지 이야기> 공연일정

07.13토 15:00/19:00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07.19금 19:30/ 20토 15:00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
07.27토 15:00/19:00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08.03토 19:00	광양문화예술회관
09.21토 14:00/18:00	부산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09.28토 19:00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극단소개

프로덕션IDA(아이디에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출발한 단체로
형식과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 공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관객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메시지를 담아낸
융복합 예술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각을 전달하고자 한다.



프로덕션IDA 공연 연혁

- 2024 <배소고지 이야기> 작 진주 | 연출 김희영 | 루마니아 Teatrul Tony Bulandra
2023 <배소고지 이야기> 작 진주 | 연출 김희영 | 이집트 The Main Theater of Sharm ElSheikh Culture Palace, 나루아트센터, 제주 BelIN, CKL스테이지 외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작 지나 지온프리도 | 연출 김희영 | 나온씨어터
2022 <세븐 썬> 작 정지현 | 연출 황세원 | 부산 공간 소극장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작 지나 지온프리도 | 연출 김희영 | 예술공간 혜화
2021 <세븐 썬> 작 정지현 | 연출 황세원 | 삼일로 창고극장
2020 <환희 물질 화상> 작 지나 지온프리도 | 연출 김희영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9 <마음의 범죄> 작 베스 헨리 | 연출 황세원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환희 물질 화상> 작 지나 지온프리도 | 연출 김희영 | 산울림 소극장
2018 <마음의 범죄> 작 베스 헨리 | 연출 황세원 | 광주5.18기념문화센터
 <환희 물질 화상> 작 지나 지온프리도 | 연출 김희영 | 드림시어터

프로덕션IDA 신작 공연 안내

*"이러구 땀을 굵고 있을게로, 봐라이. 야, 얼마나 다행이여.
살아있잖애. 우리 지금 뜨겁게 익어가고 있잖애."*

2025. 02. 15. (토) ~ 02. 23. (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동백당>
작 진 주 | 연출 김희영



인스타그램 production_IDA



페이스북 productionIDA



E-Mail productionida@naver.com